



무주소방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가져

무주소방서는 지난 8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매년 3월 19일로 제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외 8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행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찬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은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계기로 지역봉사 단체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둘보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 운수파출소, 장날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운수파출소는 임실 장날 전통시장 주변에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장날 전통시장을 찾은 어르신 상대로 애광지팡이를 배부하면서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및 새벽 보행 시 밝은 옷 착용 및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용 전동의자차 및 사발이 운행이 늘어나면서 야간 운행 중 추돌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애광 반사지 부착 및 홍보를 병행했다.

김종섭 운수파출소장은 "관내 장날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지리산반달곰 구석구석 방문단, 주거환경개선 봉사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양민환, 양재웅 공동위원장)는 지난 8일, 위원 20명이 참여한 '지리산반달곰 구석구석방문단'은 관내 마을 중장년 1인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폐가구, 잡목 등을 정리하고 가정용 난방유를 제공했다.

협의체 특화사업인 구석구석 방문단은 2023년 결성, 올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흘봄어르신,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건강안부를 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인기'

애완곤충 · 수서곤충 · 식용곤충 등 전시 · 체험 등 다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가 한창인 가운데 무주반디랜드 로비에 마련된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이 인기다.

최근 봄 단장을 마친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매주화~일요일 09:00~18:00)'에서는 넓적사슴벌레(무주에서 서식하는 회귀곤충)를 비롯해 애완곤충과 물속에서 서식하는 물방개 등 약 8종, 꽃뱀이(흰점박이꽃무지), 고소애(갈색거저리) 등 식용곤충 4종, 그리고 호랑나비, 제비나비 등 살아있는 나비와 만나볼 수 있다.

또 누에의 일생 관찰은 물론, 실습기 체험이 가능하며 식용곤충 맛보기와 곤충반지 만들기, 곤충컬러비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곤충화석과 곤충먹거리 만들기 등도 추가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무주를 찾이주신 방문객들에게 만족시켜드릴 것"이라며 "무주에 서식하는 곤충과 나비 전시물을 계절별로 변화를 줄 계획으로 곤충에 대한 이해와 재미가 공존하는 자연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반디랜드에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을 비롯한 수족관과 소규모 동물동장, 애반딧불이 복원 지역 등이 자리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 중으로 4월까지는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들의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 입장료(2인) 50%를 할인해 준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남원소방서는 지난 8일,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119구급대원 6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남원소방서 강석우, 김원일, 장광철, 신용식, 최재균, 신광현 구급대원은 지난해 11월 남원시 향교동에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한편 강석우 소방장은 "심정지 환자가 무사히 회복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마을 학교 종합선물 전달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2024년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주민 돌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마을학교종합선물 전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종합선물은 입학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의지 고취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 맞이 학용품 세트를 전달해 주었다.

김종표 대강면장은 아이들에게 학교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입학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산면, 주민자치총회로 화합의 장 마련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2024년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총회는 각 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간 소통 강화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 됐으며 주요 현안사업인 지평선단 내 체육공원 정비 사업 추진과 백산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면의 현안업무를 논의하면서 백산에 대한 애정심과 책임감이 더 크게 와닿았고 백산면을 위해 우리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앞장서 홍보하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